

## 12. 분재 미술관과 그 컬렉션

오미야 분재 미술관은 100 년 가까이 일본 분재업계의 핵심을 담당해 온 공간으로써 오미야 분재 마을의 외곽에 2010 년 개관했습니다. 분재 예술의 중심적 존재이자 일본 최초의 공영 분재 미술관입니다. 오미야 분재 미술관은 21 세기에 분재의 중요성과 높은 관심을 최대한 유지하고, 분재의 1000 년에 걸친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

이 분재 미술관의 건물은 전통적인 일본 건축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관내에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담당 직원이 맞이해 드립니다. 그리고 더욱 분재 미술관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영어, 중국어, 한국어, 일본어로 스마트폰 버전 컬렉션 가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관내에 표시된 QR 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음성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건물 전면에 있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우아한 분재 정원의 풍경이 펼쳐집니다. 뮤지엄 습에서는 한정 디자인으로 인기 있는 수건과 엽서 등 매력적인 기념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

분재가 전시된 컬렉션 갤러리에 들어가기 전에 방문객은 프롤로그 구역을 지나게 됩니다. 이곳에서는 풍부한 그림이 있는 패넬을 통해 분재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기 쉽게 일본어와 영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 사용되는 수목의 종류, 이 수목들이 ‘만들어 가는’ 조형, 분재를 더욱 즐겁게 감상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석이라 불리는 바위 같은 장식용 돌 등 분재 재배와 관련된 도구에 대한 정보도 배울 수 있습니다.

오미야 분재 미술관의 컬렉션은 일본 유수의 중요 분재를 약 120 점 전시하고 있습니다. 선별된 전시물은 수령 100 년 이상을 자랑하며,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역사와 전통, 독창성,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매우 귀중한 분재입니다. 분재가 이렇게 긴 수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미야 분재 미술관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이전 소유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 희소가치가 높은 분재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수상 경력이 있는 작품 중 하나는, (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등) 두 명의 일본 전직 총리와 중요 인사들이 소유하고 있던 작품입니다.

메인 갤러리에는 컬렉션 중 5 점의 분재가 전시되어 있으며, 전시 내용은 계절을 고려해 매주 변경하고 있습니다. 각각의 분재는 칸막이가 있는 공간으로 구분해 하나하나 소중하게 전시하고 있습니다. 간유리로 된 벽은 마치 일본의 전통적인 ‘장지문’ 같은 느낌을 줍니다.

그다음에 있는 건 전통적인 격식이 다른 3 개의 자시키카자리입니다. 이렇게 일본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분재를 장식하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이 곳, 오미야 분재 미술관뿐입니다. 메인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각 방에 하나씩 설치되는 분재는 매주 변경됩니다. 관내를 지나다 보면 미술관의 메인이기도 한 개방적인 분재 정원이 펼쳐지는데, 이곳에는 60여 점의 분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. 2층 분재 테라스에서 분재 정원의 광활한 전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분재 정원의 동쪽에는 정기적으로 전시 주제가 바뀌는 전시실이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분재의 역사와 인접한 오미야 분재 마을에 대해 전시하고 있습니다.